



'2013 U대회 광주로' 실사 D-3

실사단 무엇을 보나

시민 열기·개최 역량이 '포인트'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광주 현지 실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 6명은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4박5일간 개최 후보지 평가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실사에 대비해 주요 평가 항목과 예상 시나리오, 성공적인 실사를 위한 조건 등을 세 차례로 나눠 점검해본다.

FISU가 주관하는 하계 U대회는 세계 최대의 '대학생 스포츠 축제'이자 '대학 올림픽'으로 불리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다. U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경우 광주는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는 물론 체육 인프라 확충, 국제도시 도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가 U대회 유치를 다짐(올인)한 이유다. <관련기사 3면>

실사단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 FISU측이 유치신청서 제출 때 요구한 17개 항목이 주요 점검 포인트다. ▲스포츠시설 ▲선수촌 ▲숙박 및 식사 ▲의료 ▲안전 ▲수송 ▲미디어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스포츠조직 및 경험 등이 그것이다. U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정부의 지원 의지 등도 살펴본다.

시민 축제 참가 분위기 살피 경기장 시설·선수촌 등 점검

특히 현지 실사는 한 달여 앞으로 임박한 개최지 결정을 위한 총회(5월31일)에 앞서 광주시민들의 유치 열기와 개최 역량 등을 한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때문에 광주시는 '감동의 실사'를 보여주기 위한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2013 하계 U대회 개최 후보지 실사는 스페인 비고(Vigo·4월17~21일)→광주→러시아 카잔(Kazan·5월15~18일) 순으로 진행된다. 광주 실사단은 스페인 집행위원인 스테판 버그를 단장으로 스타브로스 두비츠(그리스), 시니사 야스니(세르비아), 케말 타머(터키), 말콤메트 라레스(남아공), 히사토 아가라시(일본)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U대회 개최를 위한 도시 환경과 체육시설 등 제반 여건과 개최 역량, 시민들의 열의를 집중 점검한다. 광주시로부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프리젠테이션(PT)을 받고 월드검경기장 등 대회 관련 주요 시설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

우선 방문 이틀째인 2일 주요인 프라에 대해 PT를 통해 보고받는다. 시는 이를 위해 'About 광주'라는 주제 아래 컴퓨터그래픽 등 IT 기술로 제작한 영상과 광주시내 경기장 및 도로, 숙박·편의시설 등을 가로 3m, 세로 2m에 축소 제작한 접단 모형도를 준비했다. 실사단은 같은 날 오후 입국·세관절차, 재정 등을 중심으로 한 두 번째 PT시연에 참석한다. 3일에는 스포츠 시설과 선수촌, 4일에는 의료서비스와 도관컨트롤 여건에 대한 PT를 지켜본 뒤 열의·담력 시간을 갖는다.

특히 시민들의 유치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를 가늠하는 것이 이번 실사의 핵심요소 중 하나다. 실사단은 2일 오후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유치 기원 시민 축제'와 체육시설 등 제반 여건과 개최 역량, 시민들의 열의를 집중 점검한다. 광주시로부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프리젠테이션(PT)을 받고 월드검경기장 등 대회 관련 주요 시설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U대회 실사 시민 축제

5월 2일 옛 도청 앞 무대 3만명 참여

2013 하계 U대회 실사단의 광주 방문 기간 동안 시민들의 뜨거운 유치 열기를 한자리에 보여주는 '2013 하계 U대회 광주유치 기원 시민축제'가 펼쳐진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의 방문 이틀째인 2일 오후 7시30분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는 3만여 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참석, U대회 실사단을 위한 '감동의 이벤트'를 선보인다. 특히 실사단 6명이 모두 행사에 참

석, 광주의 유치 열기를 살펴보는 자리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와 U대회 유치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광주 시민의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의지를 담은 100만인 서명부를 실사단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시민 축제에는 R&B 그룹 SG 워너비를 비롯해 맨스가수 렉시, 스위트로우, 화요비, 린, 유리상자 등 10여개 팀이 참가, 화려한 공연을 펼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 26일 영주 종합체육관 일대에서 열린 '2013 하계 U대회 유치기원 함께해요! 시민화합 걷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U대회 유치를 기원하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先 지방발전 後 규제완화'

광주·전남 등 지자체 수도권 위주 정책 공동 대응

정부·여당의 수도권 규제완화 강행 방침에 맞서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선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청와대에 서 이명박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다음달 2일 열릴 '고위 정책협의회'에서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건설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5+2 광역경제권 개발에 앞선 확실한 지방재정 방안 마련 등을 중앙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농어촌 활력화를 위한 획

기적인 교육개선 대책,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개혁 및 기반조성, 서남권 등 '신발전지역'에 관광·물류 등 미래산업 우선 배치 등을 건의한다. 도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과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기업에 대한 규제 및 애로 해소, 중앙이 불합리하게 행사하고 있는 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광주시도 수도권 규제완화와 혁신

도시의 보완책 발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건설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광주 R&D특구 지정, 한국민주주의 정당 광주유치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 시·도는 ▲비수도권 광역경제권 개발 우선 추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비수도권 지자체와 연대해 촉구할 방침이다. /김주정·윤영기기자 jnews@

전남도 역점사업 대거 국정과제 채택

행복마을 등 탄력

한국 육성사업을 비롯해 전남도가 추진해 온 특수 시책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대거 채택돼 향후 지원 및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 3, 4기 도청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온 한국 육성정책을 비롯해 농어촌 영아 교육환경 조성사업, 행복마을 조성사업, 농업분야 1시·군 1유동업체 설립 등이 최근 새 정부의 각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중 한국 육성정책의 경우 전남도가 지난 2004년부터 21세기형 웰빙 맞춤형 한옥을 보급한 것은 물론 이를 관

광자원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이번에 국토부의 '한옥 세계화 기반조성' 사업에 채택됐다. 또 농어촌 영아 교육환경 조성 사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한 전남도는 미국 대학 재학생을 농어촌 영아인 강사로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미국 내 대학생의 국내 체류비자 발급 규제완화 검토 방침을 법무부로부터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부터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농림수산식품부가 30~40대 젊은 층의 귀

향을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뉴타운' 조성 방침을 밝힌 행복마을 사업 추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밖에 전남도는 지난 2006년부터 지역 단위별로 규모화된 1시·군 1유통회사 설립을 추진,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시·군 단위 전문 유통회사, 품목별 생산자 대표조직, 대규모 농어업인회사를 육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 또는 건의한 사업의 상당수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사업 전망이 밝아졌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당정, 국립대 예산 편성 자율화

사실상 정부가 가지고 있던 국립대학의 예산 편성권이 각 국립대로 이양된다. <관련기사 4면>

또 국가장학기금이 신설돼 저소득층 및 우수인재 학생, 근로장학생 등이 무상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재정운영특별법 제정안과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신용보증법 개정안을 4월 또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국립대학 재정운영특별법이 시행되면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예산 편성지침이 폐지되는 대신 각 국립대별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대를 비롯한 각 국립대는 총장과 교직원, 동창회, 외부

전문가 등으로 재정위원회를 구성, 중장기 대학발전계획을 수립·심의하고 대학자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신용보증법 개정안은 정부 출연금 등으로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해 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우수 핵심인재, 근로장학생 등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금 관리는 교육부 산하에 신설되는 기금운영위원회가 맡게 된다.

/연합뉴스

癌 암, 치유의 기쁨

조선평안대학교병원 암센터에서 누리십시오.

조선평안대학교병원, 암센터에서 치료까지 시스템 구축 "3차원 방사선치료기 도입 기동"

5~7주 걸리는 방사선치료, 가까운 광주에서 편안하게 받으십시오.

말단과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입니다. 이제부터 복잡하고 험난한 암 치료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조선평안대학교병원 암센터와 가족의 희망이 되십시오.

- ▶ 조선평안병원, 암센터 치료 위해 도입된 Big Bore CT 모의치료기
- ▶ 3차원입체영상과 고에너지의 방사선선 이용에 정부위탁 집중치료기(CD-CRT)
- ▶ 호흡에 따라 움직이는 정기에 치료 (호흡추적장치)
- ▶ 통증과 주위 정상조직의 방사선량을 조절하는 세기조절 방사선치료 (IMRT)
- ▶ 제왕,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투종암, 전이암 등 모든 부위

조선평안대학교병원 암센터

전화: 방사선종양학과(062)220-3245
http://hosp.chosun.ac.kr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

■ 일 시 : 2008년 5월 4일(일) 오전 10시

■ 장 소 : 한국기원 광주지원(광주시 주월동 국제호텔 건너편 3층)

■ 참가자격 : 광주·전남지역 근무 직장인

■ 팀 구 성 : 단체전=1팀 3명(주장·부장·삼장)
한 직장에서 여러팀 참가 가능
개인전=각 팀에서 1명

■ 참가신청 : 5월 2일(금) 오후 5시까지
광주일보 문화홍보국 062-220-0541, 222-8111
한국기원 광주지원 062-675-3448

■ 참가비 : 1팀당 3만원(개인전 포함)

■ 시상 : 단체 및 개인별 우승·준우승, 3위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 수여

주최: 光日報社 후원: 광주시바둑협회
협찬: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 하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학력 및 경력

- 위촉고(85학), 고려대 법대(76학번)
- 제1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5기
-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광주지검 순천지청, 여당부지검 부부장검사
-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재직 시 위촉된 헌법연구관
- 광주지검 제1지청장, 목포지청장

변호사 김재현 올림

■ 업무처소 : 2008. 4. 26
■ 대표전화 : 070-534-3366

■ 개업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4 세호빌딩 202호
■ 개업시간 : 2008. 5. 15.(목) 17:00부터